EDCF
국제개발협력 단신
2018년 4월
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정책연구팀
작성자 심사역 윤소담

OECD DAC, 2017년 공적개발원조(ODA) 실적* 발표

* '18.4.9일에 발표된 잠정치이며, 확정치는 '19.1월 발표 예정

1. 2017년 ODA 실적 및 주요 특징

□ DAC 회원국 **전체 ODA 규모는 1,466억불로 전년(1,450억불) 대비 1.1% 증가**하였으나, 실질가치 기준 0.6% 감소

○ 유럽 난민 지원비용(142억불)의 큰 폭 감소(전년 대비 △13.6%)가 ODA 증가를 억제

□ **양자간 원조는 전체 ODA의 약 72%**를 차지하였고, 이는 유상원조 6.2%와 무상원조 93.8%로 구성

○ 특히, 유상원조는 전년 대비 순지출 기준 약 31%, 총지출 기준 약 13% 증가

□ 국가별로는 DAC 29개 회원국 중 **11개국의 ODA 규모가 증가**한 반면, 한국을 포함한 18개국은 감소

○ 프랑스(18.1%), 이탈리아(12.7%), 일본(10.2%)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, 호주(△15.8%), 스위스(△13.9%), 노르웨이(△10.0%)는 크게 감소

□ 회원국의 **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(ODA/GNI) 평균은 0.31%**로 전년(0.32%) 대비 0.01%p 감소

○ 스웨덴(1.01%), 룩셈부르크(1.00%), 노르웨이(0.99%), 덴마크(0.72%), 영국(0.70%) 등 5개국이 UN 목표치인 ODA/GNI 비율 0.7%를 달성

2. 2017년 우리나라 ODA 주요내용

□ 우리나라 **2017년 ODA 규모는 전년 대비 1.8% 감소한 22억불**이며, DAC 회원국 중 15위('16년 16위)를 차지

○ 전년 대비 **양자간 원조(16.2억불)는 4.5% 증가**한 반면, 다자간 원조(5.9억불)는 15.9% 감소

○ ‘17년 국민총소득은 15,302억불로, **ODA/GNI 비율은 전년 대비 0.02%p 감소한 0.14%**로 DAC 회원국 중 25위(’16년 26위)

* 우리나라 ODA/GNI(%) 추이: (’15) 0.14 → (’16) 0.16 → (’17) 0.14

□ 양자간 원조 중 **유상원조는 전년 대비 3.4% 증가한 5.8억불**, 무상원조는 전년 대비 5.1% 증가한 10.4억불

○ 양자간 원조는 아시아 50.2%, 아프리카 24.4%, 중남미 10.7% 순으로 배분, 중남미와 아시아의 비중이 각각 1.9%p, 0.4%p 증가

○ 분야별*로는 양자간 원조의 39.7%가 경제 인프라를, 37.0%가 사회 인프라를 지원

* 세부 분야로는 교통·물류(832백만불), 보건(386), 교육(227), 에너지(115) 順

□ **다자간 원조는** AIIB 등 **지역개발은행 앞 출연·출자 감소**(△102.4백만불) 등으로 **전년 대비 약 1.1억불 감소***

* AIIB는 ’16~19년 납부계획(’16년 연2회, ‘17~‘19년 연1회)에 따라 ’17년 출자금이 전년 대비 1.5억불 감소

< 2017년도 우리나라 ODA 실적>

(순지출 기준, 백만불)

구 분	2016년	2017년	증감율(%)	비중(%)
▪ ODA (A+B)	2,246	2,205	△1.8	100.0
- 양자간 ODA (A)	1,548	1,618	4.5	73.4
유상원조(EDCF)	563	583	3.4	(36.0)
무상원조(KOICA 등)	985	1,035	5.1	(64.0)
- 다자간 ODA (B)	698	587	△15.9	26.6
▪ ODA/GNI(%)	0.16	0.14	-	

3. 시사점 및 향후 전망

□ DAC 회원국의 ODA 규모가 답보 상태에 있는 관계로 개도국 개발재원으로서 **ODA 이외의 재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**

○ ODA는 혼합금융(blended finance)을 통해 민간재원 등 타 재원을 개발재원으로 끌어들이는 촉매제 역할에 집중할 필요

□ 세계 ODA 규모 정체에도 불구하고 **유상원조는 전년대비 31% 증가하는 등** 중요한 원조유형의 하나로서 **증가세 지속 전망**

○ 무상원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원부담이 적어 주요 공여국들도 높은 유상원조 비중*을 보이고 있음

* 양자간 원조 중 유상원조 비중('17년 총지출 기준) : 일본(약 63%), 프랑스(약 50%), 한국(약 39%), 독일(약 20%)

□ **우리나라 2017년 ODA 규모는**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**실질가치 기준*으로는 6.5%나 감소**하였는바, **지속적인 ODA 확대 노력이 필요**

* OECD DAC는 공여국의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을 감안하여 산정

○ 특히, 국민소득 대비 ODA 규모가 과소하므로 정부의 ODA/GNI 비율 목표* 달성을 위해 각 원조시행기관들은 더욱 분발할 필요

* 2020년까지 ODA/GNI 비율 0.2% 달성

참 고 : 1. OECD DAC 회원국별 ODA 실적
2. 우리나라 원조시행기관별 ODA 실적

자 료 : OECD, 'Launch of ODA Figures 2017'(April 9, 2018) (http://www.oecd.org/development/launch-of-oda-figures-2017-france-april-2018.htm),
OECD, 'Development aid stable in 2017 with more sent to poorest countries' (April 9, 2018) (http://www.oecd.org/development/financing-sustainable-development/development-finance-data/ODA-2017-detailed-summary.pdf),
관계부처 보도자료, "17년 우리나라 ODA는 22억불, DAC 국가 중 15위'(2018.4.9) (http://www.pmo.go.kr/pmo/news/news01.jsp?mode=view&article_no=98592&board_wrapper=%2Fpmo%2Fnews%2Fnews01.jsp&pager.offset=0&board_no=6)
한국수출입은행, '2017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주요내용'(2018.4.9)

작 성 : 심사역 윤 소 담, sodamyun@koreaexim.go.kr

참고1 OECD DAC 회원국별 ODA 실적

(순지출 기준, 백만불, %)

국 가	2016년		2017년		증감율(%)	
	ODA	ODA/GNI	ODA	ODA/GNI	명목	실질*
미 국	34,412	0.19	35,261	0.18	2.5	0.7
독 일	24,736	0.7	24,681	0.66	△0.2	△3.6
영 국	18,053	0.7	17,940	0.7	△0.6	2.1
일 본	10,417	0.2	11,475	0.23	10.2	13.9
프랑스	9,622	0.38	11,363	0.43	18.1	14.9
이탈리아	5,087	0.27	5,734	0.29	12.7	10.2
스웨덴	4,894	0.94	5,512	1.01	12.6	9.9
⋮	⋮	⋮	⋮	⋮	⋮	⋮
대한민국	**2,246**	**0.16**	**2,205**	**0.14**	**△1.8**	**△6.5**
⋮	⋮	⋮	⋮	⋮	⋮	⋮
합 계	**144,965**	**0.32**	**146,600**	**0.31**	**1.1**	**△0.6**

* 실질증감율 : 명목금액 변동 중 물가와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을 제거한 수치

참고2 우리나라 원조시행기관별 ODA 실적

(순지출 기준, 백만불)

기관명	2016년			2017년			증감액 (B-A)
	양자간	다자간	합계(A)	양자간	다자간	합계(B)	
한국수출입은행 (EDCF)	589	-	589	611	-	611	22
한국국제협력단 (KOICA)	552	-	552	562	-	562	10
한국은행	-	469	469	-	349	349	△120
외교부	164	93	257	172	87	259	2
기획재정부	20	79	100	18	108	126	26
기 타	223	56	279	255	43	298	19
합 계	**1,548**	**698**	**2,246**	**1,618**	**587**	**2,205**	**△41**